

2018년 9월 21일



일곱 번째 나팔과 휴거 (2부)

-대니얼 저스터

[여기](#)를 클릭하면 1부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5.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천사 중 한 천사는 땅에서 추수를 하는데, 의인의 추수 같아 보입니다 (**14:16**). 그 다음 다른 천사는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모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환난의 끝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에 들어맞으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설명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팔절과 욘 키푸르 (속죄일) 사이에 있는 시간에 들어맞습니다.

진노 전 휴거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 근거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휴거의 때에 대한 그들의 시각에 있어서 환난 중, 진노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난을 7년이라는 시간으로 오해하여 그것을 일곱 나팔과 엮으나 성경은 환난이 3년 반, 일곱 해의 절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대접은 맨 마지막에 오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님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을 구하러 올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올라온 열방의 군대를 치시는 그림도 포함합니다 (계 19장; 율 3장; 속. 12, 14장).

6. 일곱 번째 나팔의 관점은 또 열방 군대가 멸해진 이후 일어나는 일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나팔절/유대 전통의 새해는 로쉬 하샤나와 욘 키푸르까지인 경외의 날들로 이어지지만, 욘 키푸르에 우리는 마지막 회개의 날을 갖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열방에는 대대적인 욘 키푸르가 있을 것입니다.

휴거와 부활 이후 예슈아의 지상 재림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의 회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통곡하는 **스가랴 12:10~14** 그림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들은 그들이 찌른 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하여 통곡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늘에서 그분을 뵈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서 문자 그대로 이곳에 오시어 이 땅에 보이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휴거 전 이스라엘의 돌이킴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마지막 전쟁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먼저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때에 각 사람이 통곡한다는 그림은 맞아떨어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전쟁 후에 본래의 몸을 가진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그분께서 내내 바로 그분, 그들의 메시아이며 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에서는 욘 키푸르가 휴거와 부활 후에 온다면 맞아떨어집니다.

7. 욘 키푸르 끝에 나팔을 부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자 오는 세상의 개시가 될 것입니다. 레위기 25:10~12에서 욘 키푸르에 부는 나팔은 희년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과 열방이 회개하고 이제 모두 함께 수כול 즉

장막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속 14:16). 천년왕국 시대의 첫 번째 장막절은 메시아의 신부가 메시아께 연합됨을 축하하는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욘 키푸르 나팔이 불리는 것은 휴가와 부활이 아니라, 옛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 메시아와 그의 유대인과 이방인 신부가 이스라엘과 열방에서 다스리는 세상이 시작되는 희년 나팔일 것입니다. 휴가의 나팔은 회개 후 욘 키푸르 끝에 평화의 시대를 알리는 나팔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과 **스가랴 14장**의 마지막 심판과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을 알리는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은총과 간구의 심령

아세르 인트레이터가 예루살렘이 열방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때이자 동시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는 때가 되는 그 시점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시청해 보십시오!

*자막: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